

일본 노인 코렉티브 하우스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munity Design Application in the Senior Collective Housing in Hyogo Prefecture, Japan

慎 鏞 在*
Shin, Yong-j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ommunity design applications in the senior collective housing in Hyogo Prefecture, Japan. It was performed by two programs, application program and space design program. The former is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the planing and design process, sharing, community activity, social interaction, and management by residents. The latter is focused on the common space(room) design. It was also performed by literature review, observation, and interview. The findings for the community design as an application program in SCH are almost the same with those in CH. But, the level of common meal and common laundry in SCH is lower than that of CH. And space design program is focused on the location and scale of common space(room) which is related to the number of users. As a result, the positive possibilities of SCH as a new residential type for the self-reliant seniors can be confirmed. The difference of community design application between CH and SCH is caus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senior's health conditions, economic factors, and Japanese life style.

Keywords : Senior Collective Hosing(SCH), Collective Hosing(CH), Community Design Application, Common Space(Room)

주 요 어 : 노인 코렉티브 하우스, 코렉티브 하우스, 커뮤니티 디자인 적용, 공동생활공간

1. 서 론

1. 연구 목적

노인문제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하나의 과제이다. 노령화 사회¹⁾에서의 노인주거문제는 사회적 변화요인에 따른 몇 가지 예측을 바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율이 늘고, 경제적 내지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될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생활수준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인의 라이프사이클 중에서 특별한 보호 내지

간호가 필요 없는 즉 자립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자식과의 동거비율이 줄어들면서 노인 독립가정이 더불어 늘어날 추세이다.

이러한 전망들을 통해 볼 때, 머지않아 진입될 노령사회의 노인문제를 생각함에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자립의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독립가정을 꾸려가기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일이 사회·경제적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로 인식된다.

*정회원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본 연구는 2001년도 부경대학교 기성회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2000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7%를 넘어 노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 즈음에는 이 비율이 14%에 달해 노령사회가 될 것으로 케이디아(KDI)는 예측하고 있다.(중앙일보, 2002. 2. 7.)

서구에서나 일본 등 노인문제 선진국에서는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노력은 물론이고 자립 가능한 노인들의 주거생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거유형에 대한 폭넓은 연구들²⁾이 있어 왔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립가정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의 주거문제에 접근하는 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 효고(兵庫)현의 노인코렉티브하우징(Senior Collective Housing: 이후 SCH로 표기함)에 대하여,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SCH의 일반적 장단점 및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 본 기존연구³⁾의 성과를 인정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시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것과 관련된 적용 프로그램 및 공간설계 프로그램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자립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이란 일반적으로 주거계획에서 논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과 무관하지 않지만, 노인이라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특성이 이들 커뮤니티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주요 관심내용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대상 하우스징이 서구사회의 새로운 주거형식인 코렉티브하우징(Collective Housing: 이후 CH로 표기함)을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CH에서의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일반적인 노인의 주생활 특성을 파악하여 커뮤니티 디자인 측면에서 SCH의 가능성을 살핀다.

연구대상 하우스징 출현의 사회적 배경 및 계획단계 추진과정에서 각 주체(행정가, 전문가, 입주예정주민)들 간의 논의내용 및 입주 후 주거실태 분석을 통하여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 적용 프로그램 및 공간 디자인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대상은 일본 효고현 소재 노인공동주거 10곳

이며, 이들 각각을 K.Y.(片山) M.H.(南本町) I.K.(岩屋北町) O.Y.(大倉山) W.H.(脇の浜) A.S.(金樂寺) H.I.(福井) H.Z.(眞野) K.Z.(久二塚西) K.C.(久々知))로 표기한다. 현장조사 기간은 이틀간(2001. 6. 16~6.17)이며,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II. CH에 적용된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과 SCH의 가능성

1. CH에서의 커뮤니티 디자인

덴마크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이나 스웨덴에서 시작된 CH는 모두 개인적 생활을 중시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한 만큼의 공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주거형식이다. 주거의 대부분은 개인소유이지만 공동생활에 필요한 공동생활공간 일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형식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 핵가족 독신자 노인 등 어떠한 가족유형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주거형식이다. CH는 국가 등 공공단체가 건설주체인 경우가 많고, 코하우징은 공동참여자 개인들이 건설 및 운영의 주체가 된다⁴⁾.

이들 CH에서 추구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의 핵심은 공동생활공간을 두고 그에 대한 권리 및 역할을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공동생활과 이웃간의 만남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주민의 결속력이 높아지길 바라는데 있다. 이들 결속력은 CH의 기획 및 디자인 과정에의 주민참여 및 자치관리를 통해 더욱 강화 될 수 있다.

2. SCH의 가능성

1) 자립노인의 주생활 특성과 커뮤니티 디자인

4) 코렉티브하우징은 코하우징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다소의 차이점을 갖는다. 코하우징 주민들은 안정된 가정의 프라이버시와 자율권을 가진 채 기존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코렉티브 하우스징 또는 의도적 커뮤니티의 멤버들은 종종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나 새로운 가족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노인주거는 코렉티브 하우스징 보다는 코하우징의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Dorit Fromm(1991), Collaborative Communities,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p.15, Kathryn McCamant and Charles Durrett(1994), Cohousing, Ten Speed Press.)

2) 이러한 노인주거유형에는 방갈로, Flatlet(또는 Annexe Flat)(영국), Service Flats, Collective House(덴마크) Collective House, Scattered Flats(스웨덴), Old Aged Town(스위스), Pensioners' Dwelling(독일), Retirement Community(미국) 등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서의택, 박태환(1984), 박근형, 양우현(1996), 전명숙, 강순주(1992), 박태환(1992), 강병근(1999) 등)

3) 정진아(1993), 일본의 Collective House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3호.

자립노인과 의존노인은 노인의 거주방식, 신체적 상황,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여러 구분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자립노인은 자식과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또 신체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인을 지칭한다⁵⁾. 가족 또는 정부차원의 경제적 지원 내지 보조를 받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독립생활가능노인은 과반수가 넘고 있어⁶⁾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절실하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신체적 활동능력 감소 및 생리적 기능의 저하, 경제적 수입감소, 사회적 활동 축소 등을 꼽는다. 이러한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에서 노인들의 낮 동안 생활행위에 대한 관찰연구⁷⁾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들은 보편적으로 하루시간의 절반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낸다’고 한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는 등 말 그대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며, 몸을 움직이지 않음과 사회생활의 중단에 따라 노인의 생활 대부분이 저녁식사, 차 마시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취짐을 뜻한다.

또 노인이 되면 경제적 활동의 축소 내지 정지에 의해 생활비 지출을 가능한 줄이려고 하며, 그들이 줄일 수 있는 생활비 항목 중 주거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⁸⁾.

이러한 노인들의 주생활 특성은 외견상으로는 할 일 없이 무료함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라는 두 가지 개념의 상충적 요구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통제해 가는지

가 궁금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 다만, 노인이 되면 생활의 대부분을 주거공간에서 보내며, 또 주거공간 중에서도 침실이라는 닫혀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스스로 폐쇄성을 띠는 경향이 강하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을 뿐이다.

커뮤니티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공동 장소’와 ‘사회적 교류’ ‘결속력’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연구(신용재, 김종인(1989))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웃교제의 의미 및 내용, 수준 등을 비롯하여 교류의 빈도 및 규모, 공간적 범위를 비롯하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고, 교류의 효과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노인주거를 계획함에 있어서 앞서 살펴 본 노인의 생활특성들, 예컨대 닫혀진 생활 지향의 폐쇄성을 띠는 경향이 짙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의 일상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웃과의 만남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지향적 생활의 적극적 도입이 요구된다.

2) 공동주택과 SCH

자립형 노인의 주거 디자인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을 염두에 둔 디자인 즉,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은 상징적이면서 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주요개념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다만 이러한 커뮤니티 지향의 생활이 사회적 교류로서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에 의한 전통적 이웃의 역할만을 추구하는 교류에 그치는가, 아니면 공동식사, 공동세탁 등의 공동생활까지를 추구하는 강화된 개념의 교류인가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CH는 서구사회에서는 일단 검증은 거쳐 활기차게 도입되고 있는 주거개념이지만,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SCH에서는 일반 CH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과의 사회적 교류에서 기대되는 활기참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할 수 있다. 자식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거나 또는 살기를 원치 않는 자립형 노인들에게 공동주택형 SCH가 이웃의 역할회복을 통해 주거생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주거형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공동주택 형식 SCH의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소규모의 SCH인 경우 SCH만으로 구성하기, SCH 단

5) 박태환(1992), 노인층의 주거연속체와 공동체 형성(1)(2), 건축사, 9201, 9202.; 외국 노인주거의 3단계 구분을 통해 1 단계로 건강한 노인의 ‘독립노인주거’, 2단계로 허약한 노인의 ‘노인서비스주거’, 3단계로 노인환자의 ‘노인간호시설’로 나누고 있음.

6) 정경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8. 10, p.216.(여기서는 56.6%를 보여줌)

7) Blankshire Country Council(1982), 'Voluntary Services, The Australian Paradox', Community Care, pp.18-20.

8) 은기수(2001), 한국노인들의 경제생활(김두섭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p.316) :우리나라 노인가구주 가구중에서 주거비지출비율이 1994년 3.8%에서 1998년에는 4.3%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함.

독의 동(棟)구성하기, 및 일반 공동주택의 일부에 SCH를 포함시키는 방식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Ⅲ. 연구대상 하우스에서의 커뮤니티 디자인 적용

1. 대상하우스 출현의 배경

일시에 삶의 터전인 주거환경이 파괴되는 재앙도 있다. 지진에 의한 대규모 가옥의 피해도 한 예가 된다. 일본의 한신 대지진(1995년)도 주거환경을 일시에 파괴하였고, 피해자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을 위한 주택을 어떠한 형식으로 복구하여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생겼다. 사회적 긴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관영(현영 및 시영) 공급방식⁹⁾의 SCH 출현의 사회적 배경이 된다. 그때까지 CH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주거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전문가들은 코렉티브하우스 사업추진응원단¹⁰⁾을 발족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지원과 참여를 이끌었다.

사업화 결정에서 입주까지의 활동¹¹⁾은 정보수집, 설명책자 및 팸플릿 만들기, 가설주택의 순회하면서 지원자 모집에 앞선 설명회, 입주예정자를 위한 거주행동의 학습 등에 관한 워크숍을 기획 및 운영하였다. 입주 후에는 공동공간(실)의 비품구입의 지원, 공동거주의 생활방식에 관한 설명회 개최 및 자치회 조직, 공동거주 규칙 만들기의 상담 및 공동거주의 계기 만들기로서의 식사모임이나 차모임 등의 개최를 위한 지원이 있었다.

2.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 적용 프로그램

SCH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 적용 프로그램에서 살피는 특징적 내용은 기획 및 디자인 과정에의 주

민참여, 공동분담, 이웃과의 만남, 공동생활, 자치관리 등이다.

1) 기획 및 디자인 과정에의 주민참여

기획 및 디자인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방법 및 범위에 대한 관심은 높다. SCH의 문의센터에 접수된 모의 문의내용에 '입주수속에서부터 입주자 결정, 건축평면 결정에의 전원참여, 건축, 입주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적용되는가?', 'SCH의 적정규모(호수)에 대해서는 결정된바가 있는가?', 등¹²⁾이 있다. 서구의 CH와는 달리 기획 및 디자인 과정에는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 후 이들을 대상으로 SCH 전반적 디자인 설명회를 갖는 것이 전부이지만, 이것은 진재복구 명분으로 단기간에 SCH를 공영주거개발 방식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적 한계성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2) 공동분담, 공동생활, 이웃과의 만남

공동분담, 공동생활, 이웃과의 만남은 공동생활을 전제로 삼는 CH의 커뮤니티 디자인 적용 프로그램의 핵심적 개념들이다. 또 이들 개념들은 개별적으로 보다는 상호 불가분의 적용관계 맺기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공동분담은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공간과 물품이 생겨나는데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에 대한 개념이다. 그것은 주민들의 만남과 결속력도 깊은 관계가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데, 바꿔 줄 수 있는가?' '공동관리에 협력적이지 않는 사람이 나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식사준비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료로 식사를 하도록 할 것인가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식사준비를 하도록 할 것인가?'¹³⁾등 어떻게 해야 공동분담, 이웃교제, 공동생활을 통한 주민간의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관심들이 나타난다.

공동식사도 SCH의 주요 관심사이다. 코하우스이거나 CH에서는 거의 매일 또는 1주일에 1~2회 정도의 공동식사를 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고 있어¹⁴⁾

9) ココライフ魚崎(2000), 民間 コレクティブ ハウスの誕生, '報告, きんもくせい': 한신 지역 10곳의 공영SCH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가 알려지면서 민간부문에서도 SCH의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 노인들의 미래지향적 주거양식으로서 코렉티브하우스가 뿌리내리고 있다.

10) 石東直子+コレクティブ 應援 団(2000),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 ただいま 奮闘中, 學藝出版社, p.11 : 도시계획가, 건축가, 의사, 복지관계자, 행정가 등이 1995년 9월에 제1회 공개미팅을 갖고 그 후 매월 모임을 가졌음.

11) 石東直子+コレクティブ 應援 団(2000),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 ただいま 奮闘中, 學藝出版社, p.13.

12)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 사업추진응원단(1997),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의實現に 合せて, pp.10~12.

13)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 사업추진응원단(1997),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의實現に 合せて, pp.10~12.

14) Kathryn McCamant & Charles Durrett, Cohousing., Ten Speed Press. 1994. pp. 39-42

공동식사가 완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연구대상 SCH의 경우¹⁵⁾ 많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에서 적게는 1개월에 한번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발전의 방향이 주목된다.

공동세탁도 공동생활의 주요내용이다. M.H.에서처럼 각 층에 공동세탁실을 두는 등 5층 건물에서 세탁물을 1층까지 운반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를 하고 있지만, 현재 공동세탁기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본의 생활 관습상 공동세탁기의 사용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¹⁶⁾. 또, H.I.에서도 1층의 공동세탁코너에 주민이 설치한 중고세탁기를 통해 청소에 사용되는 걸레를 빨고 있을 뿐 그의 공동세탁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취미활동으로서 사회적 교류는 그 양과 질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SCH에 공동실의 벽에 걸려있는 알림판의 내용 중 교류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 사회적 교류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I.K.알림판에는 주 1회 차 모임을 갖고, 타 SCH 주민들과도 정기모임을 갖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O.Y.에는 SCH의 프런티어 활동으로서 요리교실(매월 1회), 아침식사모임(주 1회), 원예교실(2개월에 1회), 노래모임(수시), 친구방문(안부확인), 생일모임(식사모임시), 외부산책연락 등이 있다. 그 외 주택청소 날짜 알림(H.Z.등)이 많고, K.Z.의 '6월 예정표'에는 데이 서비스, 모닝 서비스, 정례모임, 대청소 모임 등 공동생활이 활발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된다. 뿐만 아니라, SCH 노인주거는 사회봉사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봉사활동 대상이 된다.

15) 石東直子+コレクティブ 應援団(2000),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 たいま 奮闘中, 學藝出版社 :공동식사는 H.Z.에서는 매월 1,3주 일요일에 조찬모임에 입주자들만이 참석하였으나, 월 1회 점심모임에는 지역주민들도 참석시키고 있다. (p.196), K.Z.에서는 월 1회 식사를 위하여 3개의 식사분담 그룹을 운영하며(p.192), O.Y.에서는 주 1회 조찬모임을 갖는다(면담 및 관찰).

16) 石東直子+コレクティブ 應援団(2000),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 たいま 奮闘中, 學藝出版社 p.154. (노인들은 1회 세탁물이 적고, 더러워진 속옷을 남이 보는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또 세탁 후 빨래날이대가 위치한 자신의 방 발코니까지 운반하는 것도 어렵다. 더구나 세탁기의 구입경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부담금 부담방법 등에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교류는 SCH 주민들끼리 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주민과의 교류도 추진되고 있다. H.Z.에서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간단한 조식회(처음에는 거주자만 참석하였으나, 나중에는 지역 주민까지 참석)를 갖고, 월 1회 점심모임 생일파티,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¹⁷⁾ 취미 활동도 다양하다.

한편, K.Z.는 주거생활의 대부분이 실내생활로 빠져들기 쉬운 노인을 위하여 공동 생활공간 전면에 위치한 옥상에 정원을 공동작업으로 가꾸어 외부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 이 공용공간의 알림판에는 '이 광장은 SCH의 일부입니다. 주민이외는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야간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주의사항을 담은 메시지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형식의 SCH에서 발코니가 이웃간의 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발코니는 공동주택의 공간 구조적 특성상 폐쇄적인 현관 쪽과는 달리 외부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또 이웃과의 사이에 있는 발코니 측벽만 허문다면 옆집 이웃과 왕래가 손쉬운 개방공간이 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때 그곳은 각 세대의 사적공간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반공적 공간이 된다. 노인의 발코니 이용방식 면에서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가 선택적으로 요구될 경우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가치판단에 따라야겠지만, 연구대상 SCH에서는 발코니 공간을 이웃과의 통로가 될 수 있게 개방함으로써 발코니의 커뮤니티 지향적 가치를 크게 인정하고 있으며 또 노인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O.Y.는 기존 발코니의 좁은 폭을 넓게 확장한 경우이다. 인터뷰 조사에서도 확장된 발코니가 주민들의 화초 가꾸기 장소로 뿐만 아니라 이웃 노인들 간의 담소의 장소로 활용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다.

3) 자치관리

자치관리에 대한 관심은 모의 SCH 문의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입주 후 당면

17) 石東直子+コレクティブ 應援団(2000),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 たいま 奮闘中, 學藝出版社. p.96.

할 자치관리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문의¹⁸⁾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에 의한 자치관리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SCH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현황 및 실태로서 O.Y.는 대단위 아파트의 일부에 SCH를 둔 경우로서 단지 전체관리비 및 SCH 관리비가 2중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SCH 동만의 독립된 관리가 되길 바란다¹⁹⁾. 또 H.Z.에서는 공동생활 공간을 낮에는 언제나 개방해 두지만 야간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개방하며, 열쇠는 3인의 관리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다. 이것도 공동관리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에서이다²⁰⁾. 한편 K.Z.에서는 방문객이 공동실에서 숙박을 원하는 경우 1박에 일정금액을 받아 공동경비로 사용한다²¹⁾.

이러한 자치관리에 대한 다양한 운용프로그램들은 주민들 스스로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협의하여 관리규약을 만들어 관리하는 가운데 SCH 주민들의 협동심 및 응집력을 키울 수 있어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3. 공간설계 프로그램

앞서 살펴 본 커뮤니티 디자인과 관련된 적용프로그램과 더불어 이것의 실현을 위한 공간설계 프로그램의 실태를 공동 생활공간(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대상 SCH 10사례 중 SCH만으로 구성된 곳(3사례) 보다 일반세대와 함께 공동주택을 구성한 곳(7사례)이 두 배로 많이 나타난다. 또 후자의 7사례 중에는 SCH만의 단독건물 등을 구성하는 경우(5사례)가 일반동의 일부 층에 SCH를 부분적으로 두는 경우(2사례)보다 2.5배로 많다.

공동주택 형식으로 SCH를 계획할 경우 공동주택 전체를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SCH로 만들거나, SCH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일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일부 동이나 또는 일부 층만을 할애하여 SCH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표 1>

연구대상 SCH에서 이들 공동생활공간의 면적비율이 어느 수준인지, 또 이들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설계 프로그램

표 1. 연구대상 SCH의 설계특성

	K.Y.	M.H.	I.K.	O.Y.	W.H.	A.S.	H.I.	H.Z.	K.Z.	K.C.	
건설주체 및 입주일	현영97.8	현영98.2	현영98.2	현영98.4	현영99.3	현영98.4	현영98.4	시영98.1	시영98.12	시영98.12	
주택형식 구조 건물층수	단독 목조 2층	공동 RC 5층	공동 RC 3층	공동 RC 14층	공동 RC 6층	공동 RC 4층	공동 RC 3층	공동 RC 3층	공동 RC 5,7층	공동 RC 4층	
주호별 호수	1 DK	6	19	16	32	32	32	14	15	45	19
	2 DK	-	8	6	-	12	22	9	12	13	3
	3 DK	-	-	-	-	-	17	7	2	-	-
	계	6	27	22	32	44	71	30	29	58	22
공동생활공간 면적(M ²) 및 비율(%)	53.3 23.7	173.2 15.1	100.0 10.9	222.4 17.2	280.4 14.5	498.4 13.8	209.4 14.2	193.2 7.7	193.0 4.6	약200 ?	
공동생활공간의 배치형식	1층에 MAIN만	1층에 MAIN, 각층에 SUB	1층에 MAIN, 각층에 SUB	각층에 MAIN	홀수층 MAIN, 짝수층 SUB	홀수층 MAIN, 짝수층 SUB	1층에 MAIN, 각층에 SUB	1층에 MAIN만	1층에 MAIN만	1층에 MAIN, 3,4층에 SUB	
주호별 전용면적 (M ²)	1 DK	28.6	32.8	34.6	31.5~35.5	34.8	33.7	33.8	35.0	36.0	36.0
	2 DK	-	43.6 44.5	43.7	-	44.9	42.7	44.0	45.0	46.0 48.0	46.0~48.0
	3 DK	-	-	-	-	-	57.4	56.3	55.0	-	-

18) 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사업추진지원단, 콜렉티브 하우스의 실현에 대해서, 1997. 3. pp.10~12.

19) 石東直子+コレクティブ應援団(2000), op. cit. p. 120, 141.

20) 石東直子+コレクティブ 應援 団(2000), op. cit. p.96

21) 石東直子+コレクティブ 應援 団(2000), op. cit. p.189

램을 이해하고자 한다.

1) 공동생활공간의 면적비율

SCH의 설계에서 공동생활공간이 전체 주거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공동생활의 내용, 사용빈도, 주민의 공동생활에 대한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설계방향의 문제제기(problem seeking)와 함께 설계 대안제시(problem solving)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미가 크다.

연구대상 SCH 중 공동생활공간이 전체면적의 20% 미만인 80%(8/10사례), 20~25%가 20%(2/10사례)이다. 이러한 면적비율은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CH 및 코하우징의 비율²²⁾(20% 미만 80%, 20~30% 미만이 13.3%)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수치이다. 다만 연구대상 SCH에서 그 비율이 25%이상인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서구사회의 CH에서는 30% 이상도 적지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는 SCH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삼는 CH 보다는 공동생활의 내용(종류 및 량)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일본이라는 사회, 문화적 풍토 속에서 새롭게 시도된 주거형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동생활공간의 면적비율을 무작정 높게만 계획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2) 공동생활공간의 배치방식

SCH 공동생활공간의 배치방식은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 공동주택 및 공동생활공간의 공간적 규모 및 구성방식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다.

연구대상 SCH는 서구사회의 CH와는 달리 분동형은 없고, 일체형 중에서도 분산형의 비중이 높고(7/10사례, 70%), 집중형은 낮다(3/10사례, 30%). 분산형 중에는 몇 개의 주(main)공동생활공간을 나누어 두는 방식(1/7사례)과 1곳의 주(main)와 몇 곳의 부(sub)공동생활공간을 두는 방식(4/7사례)과 몇 개의 주와 몇 개의 부를 두는 방식(2/7사례)이 있는 등 다양한 방식이 채택된다.

예컨대, W.H.에서는 3개의 CH그룹을 두었으나 자

치회 모임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1층에서 6층까지 44호 전원이 참여하는 모임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생활공간을 적정규모로 적정 위치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디자이너의 배려와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생활공간을 줄여 운영경비를 절감하려는 수요자의 요구방식 사이의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은 SCH에서 한곳의 공동생활공간으로 몇 호의 노인가정을 계획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 자료로서 유용하며, 40여 호수는 1곳의 공동생활공간으로서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에서는 2개 층에 1개씩의 SCH 단위를 두고, 홀수 층에 주(main), 짝수 층에 부(sub)의 공동생활공간을 두는 방식이다. 그런데, 모집단위가 단위 SCH가 아닌 건물전체로 이루어졌으며 입주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 명씩 입주하게 되어 단위 SCH와 관계없이 먼저 입주한 사람들끼리 SCH의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단위 SCH의 공동생활이 아닌 전체 SCH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진다²³⁾.

3) 발코니 이용형태

연구대상 SCH에서 발코니는 옆집과 완전히 차단된 일반 공동주택과 같은 형식은 없고, 옆집과 출입구를 두거나(2사례) 칸막이가 없이 개방하여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7사례)으로서, SCH에서 발코니 공간에 대한 인식 및 이용방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IV. 결 론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자립노인의 주거문제를 생각하면서, 일본 효고현에 건축된 공동주택 형식의 SCH의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디자인의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특성은 공동생활, 공동분담, 자치관리 등에서 찾아진다.

- 일반 CH에서의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들이 SCH에서도 그대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가능

22) 신용재(2001), Cohousing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2권 1호, p.49

23) 石東直子+コレクティブ, 應援団(2000), p.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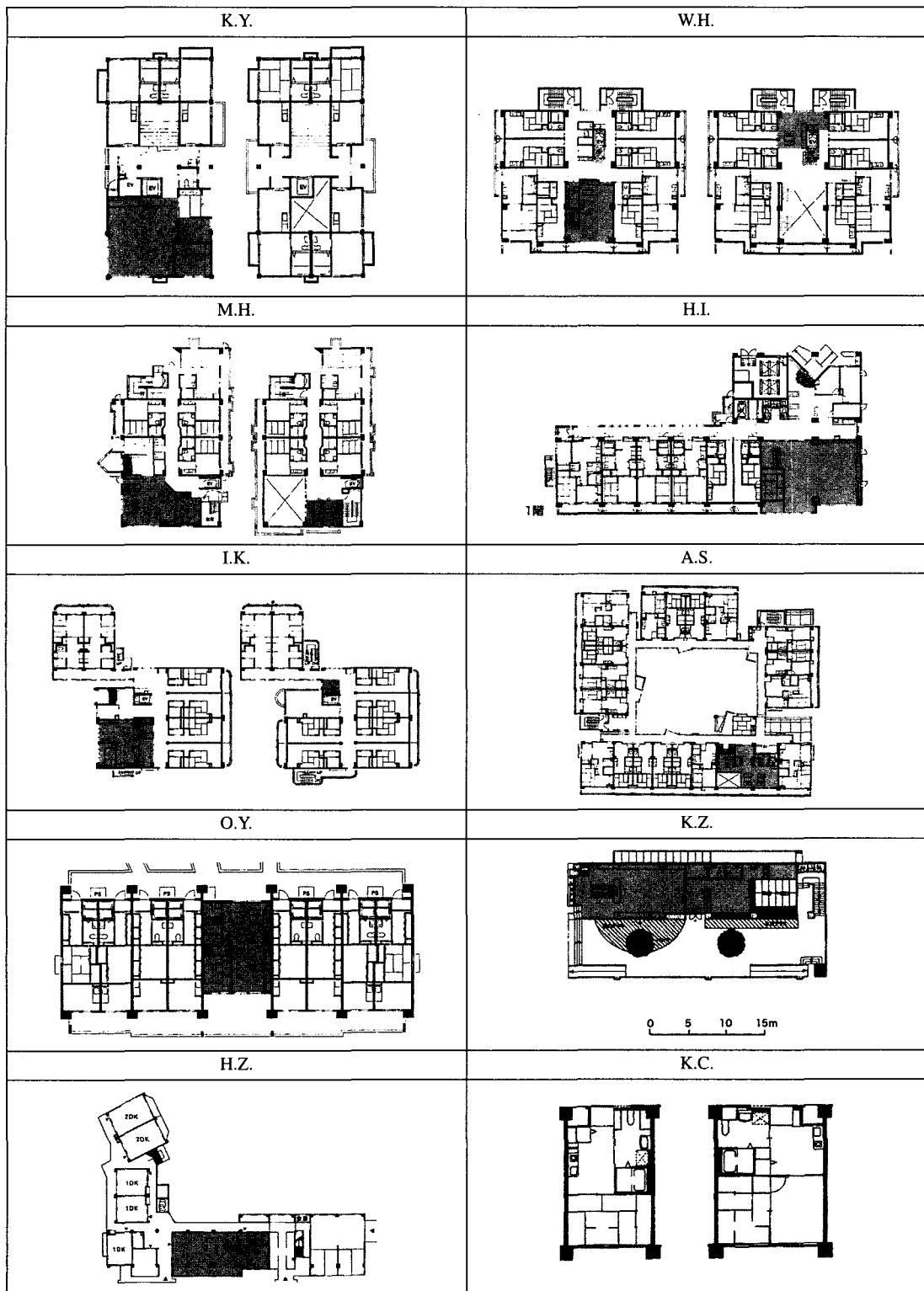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 SCH의 공동 생활공간 설계 특성(짙은부분이 공동생활공간)

성이 높다. 다만, 공동생활의 내용이 CH에서보다 다양하지 못하고 한정적이며, 또 이들 중 공동식사 및 공동세탁은 CH보다 활용빈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라는 신체적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생활관습이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 노인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룹모집 제도를 구상한 것은 커뮤니티 디자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것은 코하우징에서 입주 전 디자인과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대소속감(we-feeling)을 SCH에서는 입주 전 노인들 간의 친분관계를 그대로 SCH로 이어가려는 발상으로서 의미가 크다.

둘째, 커뮤니티 디자인의 적용 실태로서 공간설계 프로그램은 공동생활공간(실)을 중심으로 면적비율, 배치방식 등에 대한 계획적 고려내용으로 설명된다.

- 공동생활공간은 면적나누기 및 배치방식 등에서 다양한 유형이 적용되고 있다. 단위공동생활공간의 이용세대수 규모는 일반CH(30-50호)보다 작게(20-30호) 제안되었으며, 세대가 여러 층으로 나누어진 경우 1층 또는 홀수 층에 주(main)공동생활공간을, 나머지 층 또는 짝수 층에 부(sub)공동생활공간을 두는 등 노인의 신체적 거동을 고려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방식은 주공간만이 이용되고 부공간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노인의 경제적 관습적 특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실제 단위 공동생활공간의 이용세대 규모가 71호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공동생활공간의 유지, 관리상의 문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어 주목된다.

- SCH에서 발코니를 옆집과 연결하여 개방하고 화초를 심는 등 실내 정원으로 가꿈으로써 방안에 혼자 머물기 쉬운 노인들의 생활을 방밖(발코니)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 효고(兵庫)현의 SCH를 커뮤니티 디자인의 적용 프로그램과 공간설계 프로그램의 시각을 통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SCH는 자립노인들 위한 새로운 주거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노인문제 여건이 유사한 우리나라에서도 SCH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강병근(199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10호.
2. 김태일(1992), 일본의 고령자주택 및 복지시설의 동향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1호.
3. 김태일 외(1993), 일본 유로노인홈의 유형별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3호.
4. 박근형 외(1996), 노인을 위한 도시공동주택의 계획 방향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호.
5. 박태환(1992), 노인층의 주거연속체와 공동체 형성 (1)(2), 건축사.
6. 박태환(1992), 한국의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9호.
7. 서의택, 박태환(1984), 서구의 노인독립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권 120호.
8. 신용재, 김종인(1989), 아파트 주부의 이웃관계: 생활 수준에 의한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5권 1호.
9. 신용재(2001), Cohousing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2권 1호.
10. 은기수(2001), 한국노인들의 경제생활(김두섭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11. 전명숙, 강순주(1992), 노인주거계획에 관한 이론적 접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6호.
12. 정경희(1998),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 정무용(1996), 노인주거관련 연구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 11호.
14. 정진아(1999), 일본의 Collective House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3호.
15. 주거학연구회(2000), '더불어 사는 이웃,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16. 사업추진지원단(1996), 코렉티브 하우스의 實現 に向けて.
17. 코코라이프魚崎(2000), 民間 코렉티브 하우스의 誕生, '報告, きんもくせい'.
18. 코렉티브 하우스 사업추진지원단(1997), 코렉티브 하우스의 實現 に合わせて.
19. 石東直子+코렉티브 應援 団(2000), 코렉티브 하우스 住まい 奮闘中, 學藝出版社,.
20. Blankshire Country Council(1982), 'Voluntary Services, The Australian Paradox', Community Care.
21. Chapin. F. S(1951), 'Some Housing Factors Related to Mental Hygien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7.
22. Christopher Silver(1985), Neighborhood Plann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APA Journal, Spring.
23. Dorit Fromm(1991), Collaborative Communities,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24. Gray Gardner(1999), Why Share?, World Watch, July/August.
25. J.W. Wentling(1990), Housing by Lifestyle, McGraw-Hill Publishing Co.
26. Kathryn McCamant & Charles Durrett(1994). Cohousing, Ten Speed Press.